

2013
04

이달의 주요뉴스

언론고충처리인 첫 워크숍 개최
언론중재위원회 모바일웹 구축

인터뷰

나경원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사랑나눔 위캔 대표)

언론 사람

언론중재위원회 NEWS

제154호



창립 32주년

언론중재위원회

Contents

03 이달의 주요뉴스

언론고충처리인 첫 워크숍 개최
언론중재위원회 모바일웹 구축

04 인터뷰

스포츠를 통한 도전,
문화를 통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 나경원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사랑나눔 위캔 대표)

06 위원회 창립 32주년

08 조정후기

조정, 다시 없을 소중한 기회

09 신 동의보감

봄철 불청객 황사, 제대로 된 대비법

10 위원단상

산에 올라 세상을 바라보니...

11 마이 힐링푸드 테라피

돔배기와 봄나물

12 인문학 산책

페르시아전쟁을 불러온 '왕의 예시몽',
현대인들도 '예시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13 조정중재사례 소개 및 독자마당

14 위원동정

15 위원회 소식

언론 사람 | 2013. 04

발행인 권 성 편집인 오광건 발행일 2013년 4월 1일 등록 2009년 12월 7일 서울중, 라00325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02-397-3114 FAX 02-397-3069
홈페이지 www.pac.or.kr 편집 (주)인카커뮤니케이션즈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피해 구제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론분쟁의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식약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 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ADR 교육과정 및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

조정·중재를 비롯한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관한 전문교육과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론고충처리인 첫 워크숍 개최

서울지역 언론사의 고충처리인 대상, 효과적인 고충처리를 위한 워크숍 개최



●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3월 21일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지역 언론사의 고충처리인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 소재 방송사, 신문사 고충처리인 23명과 문화체육관광부 언론고충처리인 담당자가 참석했다.

● 워크숍의 제1세션에서는 문용갑 한국갈등관리조정연구소 소장이 ‘분쟁의 이해와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주제로 분쟁조정 자로서의 설득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심리학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제2세션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양재규 기획팀장이 범죄사건 보도 및 DB를 이용한 재보도 등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사례의 법적 쟁점을 논의했다. 이어 제3세션의 종합 토론에서는 류춘렬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의 발제 및 사회로 ‘고충처리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발전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의 진지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 권성 위원장은 “법률적인 분쟁해결에 앞서 언론의 자율적인 분쟁예방과 피해구제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고충처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위원회는 효과적인 고충처리를 위해,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조정·중재기법과 피해구제 방법에 관한 워크숍을 전국 언론사의 고충처리인을 대상으로 계속 개최할 예정이다.



언론중재위원회 모바일웹 구축(m.pac.or.kr)



위원회는 3월 초 모바일웹을 구축하고 위원회 동정, 보도자료, 간행물 발간 등의 정보를 모바일에서도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접속방법

1. 휴대폰의 인터넷 창에 주소(m.pac.or.kr)를 입력하세요.
2. 모바일 인터넷에서 언론중재위원회를 검색하세요.
3. 위원회의 각종 간행물에 오른쪽과 같이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인식시켜주세요.



스포츠를 통한 도전, 문화를 통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나경원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사랑나눔 위캔 대표)

- 부산지방법원 판사
- 한나라당 국회의원
- (현) 변호사
- (현)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 (현) 사단법인 사랑나눔 위캔 대표



올해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를 평창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열기를 이어 문화와 스포츠 분야에서 지적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나경원 위원장을 만났다.

●● 지난달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소 생소한 대회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기까지 부단한 노력과 도전이 있었을 텐데 감회가 어떻습니까?



무엇보다 사람들이 스페셜올림픽을 '잘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참여하는 선수뿐 아니라 보는 사람들도 감동을 하고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 대회의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대회에 관심을 가지도록 홍보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가 탄탄하게 커져서 세계대회를 유치한 것이 아니기에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를 탄탄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향후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지적장애인 체육 분야가 많이 소외되어 있었기에 관련 정책의 큰 틀을 정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번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의 열기가 식기 전에 행사나 이벤트를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이어나가는 것 이렇게 두 가지의 활동방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여준다면 스페셜올림픽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사회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어 곳곳에서 스페셜올림픽의 이상이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책으로 사회 변화를 꾀하기보다는 모든 국민들의 자발적인 인식의 변화와 관심이 더 중요합니다.

●● 이번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미안마의 아웅산 수치 여사의 입국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분과는 어떤 인연이 있어 특별손님으로

초청하였는지요.

스페셜올림픽에 관심이 있는 유명인사를 초청하여 이번 대회에 대한 주위를 환기시키고 관심을 집중시키고 싶었습니다. 수치 여사는 민주화의 화신으로 국내에 더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인권운동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그분과 특별한 친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스페셜올림픽의 화두가 '지적장애인의 인권 증진'에 있기 때문에 인권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치 여사의 초청이 의미 있겠다 싶어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지적 장애인 분야에 따로 관심을 집중하진 않았으나, 이번 대회를 계기로 지적장애인 분야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올해 참가국 중에 미안마는 없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한편, 수치 여사가 참석한 글로벌 서밋(이번 대회에서는 그동안의 포럼이 서밋으로 격상되었음)에서 평창선언이 채택되었는데 선언의 의미는 지적 장애인 권리를 그들의 시각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 현재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단체인 <사랑나눔 위캔>의 대표로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나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사업과 향후 비전은 무엇인가요.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가 '스포츠를 통한 도전'이 화두라면, 사랑나눔 위캔은 '문화를 통한 도전'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나눔 위캔은 2004년에 만들어진 국회 연구단체인 장애아이 위캔이 그 모체입니다. 장애아이 위캔 시절부터 1년에 한 번씩은 '산타의 작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연말에 장애학생들을 초청해서 문화공연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보는 문화'에서 '참여하는 문화'로 바뀌어갔다고 마음먹고 장애인 아티스트를 한두 명씩 무대에 올리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사랑나눔 위캔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문화를 통해 장애인이 사회에 도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마음가짐에서 시작한 일이 장애인 아티스트들에게는 새로운 직업의 길을 열어 주었고, 또 굳이 직업으로 삼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사회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나눔 위캔에서 발굴한 아이들이 이번 스페셜올림픽 기간에

각종 행사무대에 오르기도 했는데, 대표적 친구가 박모세 군입니다. 박모세 군은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임기 시작을 알리는 보신각 타종 행사에 국민대표 18인 중 1인으로 참여하기도 했었고, 최근 스페셜올림픽에서 그를 눈여겨본 미국인 목사님의 초청으로 미국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8월에 4박 5일로 진행될 예정인 '평창 스페셜 뮤직 페스티벌'에서는 국내·외 장애아이를 초청하여 집중적인 음악 레슨과 교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사랑나눔 위캔을 통해 음악에 재능을 가진 많은 장애아이가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 일반인들은 나눔활동에 참여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범한 대중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몇 해 전 그리스 아테네를 방문하고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운전을 해 주시는 분이 굉장히 영어에 능통한 여성이었는데, 본인은 공무원이며 스페셜올림픽그리스위원회의 각종 행사가 개최될 때마다 휴가를 내어 내빈들을 위해 운전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에는 자원봉사 문화가 싹트는 시기라, 대학생이나 젊은이들이 스펙을 쌓기 위한 봉사활동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선진화된 자원봉사 문화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정기적이고 일회성의 봉사활동은 도움을 주는 쪽이나 도움을 받는 쪽이나 장기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NGO단체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 매주 정해진 요일에 봉사단체에 방문하여 일정 시간 홈페이지 관리나 후원계좌 정리, 사진 정리를 돕는다면, 해당 기관에서도 고정적인 사무관리 인력을 확보한 것이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나눔활동은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함께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복지관이나 양로원, 고아원 등의 구체적인 장소를 찾는 데 집중하지만,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나눔활동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위원회는 지난해 사회공헌단을 창단하여 지속적인 나눔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공공단체가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이용하여 어떻게 실질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을지 현장에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겨울만 되면 연탄을 나르는 장면은 좀 진부하지요. '우리 회사는 장애인을 돕겠다, 그중에서 시각장애인을 돕겠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어떠한 부분을 돕겠다' 하는 구체적인 테마를 정하면 좋을 것 같

습니다. 특정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회공헌활동을 해 나가다 보면, 진정성이 생기고 전문성 또한 늘겠지요.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 위원회는 각종 분쟁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방법인 ADR(대체적분쟁해결제도)을 사회 각 분야에 소개하기 위해 교육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이나 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근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갈등지향적인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긴 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는 인식하에 누가 이기고 지느냐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스페셜올림픽의 슬로건은 'together we can'입니다. 슬로건처럼 현재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함께 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갈등 지향적 사회에서 갈등이 해소되고 함께 가는 사회로 변모하여야 한국이 성숙한 사회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겠지요. 재판으로는 이기고 지고가 명확할 수 있겠습니까만, 우리 사회에 법률로만 재단하기 어려운 영역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언론중재위원

회의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지겠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향후에는 이미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아니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적 언론중재위원회'가 되면 어떨까 합니다.

● ● 판사, 국회의원에 이어 사회단체 대표로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각 직업인으로 활동하며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있는지요.

지금은 스페셜올림픽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사를 그만두고 정치를 했기에 올해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개최라는 보람된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께도 퇴임 후에 어떤 순간이 보람되었는지 여쭙보면, 재임 당시의 최고의 순간이나 업적을 기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 마음 따뜻한 일을 한 것이나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를 해결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제겐 그 결과물이 스페셜올림픽입니다.

• 진행 | 손정배 (홍보팀장) • 정리 및 사진 | 최은진 (홍보팀 차장보)

위원회 창립 32주년

언론중재위원회 창립 32주년

“ 축하 인사 ”



나경원 위원장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위원회의 창립 3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3년의 화두는 힐링과 소통입니다. 언론보도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조화롭게 조정과 중재를 해야 하는 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언론과 국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셔서 국민의 마음을 힐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철 지원장
의정부지방법원
교양지원

중재위원으로서 사회에서 침례하게 이슈가 되었던 문제들을 다뤄볼 수 있었던 것은 소중한 경험이었고, 그 과정에서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유능하고 센스 만점인 조사관님들을 알게 된 것은 커다란 복이었습니다. 언제나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언론중재위원회이기를 기원합니다.

위원회 창립 32주년 기념식이 3월 29일 오후 위원회 강의실에서 개최됐다. 권성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사무처 직원들에게 “최근 강의실 신설 및 전문 프로그램 마련 등 제반 환경을 구축한 만큼 위원회가 언론 조정·중재제도의 선도적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외수출을 위한 기반을 모색하여 다른 나라에 우리 제도를 널리 알리고 관련지식을 공유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유공직원에 대한 위원장 표창 및 장기근속상이 수여됐다.

- 유공직원 : 김문중(연속교육팀), 박은영(조사팀),
김이영(경남사무소), 이지은(총무팀)
- 20년 근속직원 : 류석창 전문위원(국방대학교 파견),
여종국 팀장(기사심의팀),
이진희(대전사무소)
- 10년 근속직원 : 최서윤(총무팀)



정상조 학장
서울대 법대



이광표 팀장
동아일보/채널A
기획홍보팀



김세영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3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32년간 언론중재위원회는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제도의 훌륭한 선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복잡해지는 디지털 시대에, 우리 언론이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동시에 책임감 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부탁드립니다.

언론을 공기라고 한다면, 언론중재위는 공기를 더욱 맑고 향기롭게 하는 존재이겠지요. 수년 전, 언론중재위 조정심리에 종종 참여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언론중재위 32년, 그 원숙한 모습이 더욱 듬직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들을 대표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창립 32주년을 축하합니다. 뉴스의 홍수 속에서 언론은 그 어느 때보다 객관적·합리적인 보도가 요구됩니다. 갈수록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막중한 만큼,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주시길 바랍니다.



임 종 우
조사팀 차장

조정, 다시 없을 소중한 기회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가지 법률적인 수단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만족할 수 없다면 언론인의 형사처벌을 요구하며 고소·고발을 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이야기이고, 실제로 조정신청 이외의 법적 절차를 강구하는 것은 분명 가시밭길을 걷는 일일 겁니다. 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 법원소송으로 이어졌으나 결국 흐지부지 마무리된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법률 전문가인 중재위원께서 소송의 어려움을 당사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조사관인 필자가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보면, 소송이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률지식이 많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우리 위원회의 조정절차가 피해회복을 위한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피해자가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례적으로 2시간 30분에 이르는 장시간의 심리 끝에 소정의 위로금 지급 등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입니다. 이는 중재부의 당사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와 분쟁해결을 위한 인내심 발휘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B 방송사에 이웃으로부터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자신의 사연을 제보하였습니다. B 방송사는 제보자 A씨의 일상과 이웃주민의 반응 등을 담아 10분 정도 분량의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이를 방송하였는데, 방송된 내용은 제보와는 달리 A씨를 괴롭히는 이웃은 실재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A씨의 오해나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송 이후 A씨는 자신의 제보내용과 달리 해당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묘사해 피해를 보았다며 우리 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B 방송사는 ‘신청인의 제보와 이웃주민의 발언 등을 바탕으로 방송을 제작하였고 신청인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을 변조하는 등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처리해 방송에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중재부는 방송내용이 ‘공공재’인 방송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A씨의 사생활 노출로 신청인에게 상당한 피해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방송사에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오랫동안 여러 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경험이 있으니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신청인 A씨에게 중재부는 ‘소송절차의 어려움’과 ‘조속한 분쟁해결의 장점’을 인내심을 갖고 설득하였습니다.

조정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손해배상금 산정 과정에서 작은 금액 차이에 의해 양측의 입장이 조율되지 않아 피신청인이 퇴장하였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조정성립 직전에 갑자기 신청인이 보도문에 이의를 제기해 원점에서 다시 문안을 작성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랜 언론인 경험을 바탕으로 풍부한 경륜을 갖춘 정확철 부위원장을 비롯한 중재위원들께서 최고의 인내심을 발휘하며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의 필요성’을 차근차근 당사자에게 설명한 결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이란 양측의 의사가 조율되지 않으면 원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제적·법률적 약자에게는 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실질적으로 ‘유일한 구제수단’이거나 적어도 다시 없을 소중한 기회임을 당사자가 인식하도록 중재부의 세심한 배려와 조사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봄철 불청객 황사, 제대로 된 대비법

박승민
인하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요사이 전국 산과 도로에는 두꺼운 겨울옷을 벗어버리고 가벼운 차림으로 등산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하였다. 3월로 접어들면서 봄바람이 불고 햇볕도 따스해져 야외활동을 하기가 좋아졌지만 아직은 일교차도 크고 날씨도 건조하여 야외활동 시 호흡기 질환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봄철 황사는 야외 활동에 나선 사람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므로 이에 대해 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

황사 현상은 중국의 북부 고비사막과 타클라마칸사막, 황하 상류지대가 봄철에 건조해지면서 발생한 흩먼지가 강한 상승기류를 타고 3,000~5,000m 상공으로 올라가 초속 30m 정도의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날아오기 때문에 발생한다. 여기에 포함된 미세먼 지들이 코와 기관지를 자극해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결막염, 비염,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성 질환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황사 먼지는 콧속 점막으로 들어가 과민 반응을 일으키고 콧물, 재채기, 코막힘, 두통 등을 동반하는 알레르기성비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약자, 호흡기가 취약한 천식 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등은 호흡기 질환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황사에는 납, 수은, 카드뮴 등 각종 중금속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특히 유의해야 한다.

황사에 대비하려면 생활 습관과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황사가 심할 때는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외출 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 황사용 마스크가 일반 마스크보다 먼지 흡입을 막는 효과가 더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귀가 시에는 집안에 들어오기 전 먼지를 잘 털어야 하며, 샤워를 해 온몸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는 것이 좋다.

실내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실내 습도도 50~60%로 유지하는 것도 호흡기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목이 따가울 때에는 소금물로 목을 헹궈주거나 양치질을 해 주어 구강위생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평소 흡연을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 담배를 피우면 기관지 상피가 손상되고 섬모운동에 영향을 주어 오염 물질이 밖 으로 배출되기 어렵게 되며, 황사에 섞인 오염물질이 폐 깊숙이 들어가게 되어 폐포에도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황사예보가 있을 시에는 야외 운동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만성적인 폐 질환을 앓고 있거나, 오랜 흡연으로 폐 기능이 떨어진 사람, 심장병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을 때에는 실내운동이 적합하다.

호흡기 질환에 가장 취약한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나 천식 환자는 황사 때문에 폐활량이 떨어지거나 천식발작 증상이 심해진다는 국내외 보고가 있어서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평소시 하던 기관지 확장제 복용 및 염증치료를 충실히 해야 한다. 만약 평소와 달리 기침이 더 심해지고 가래가 노랗게 되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심해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항간에 돼지고기가 체내에 축적된 공해물질과 중금속을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황사예보가 있는 날은 돼지고 기, 특히 삼겹살의 판매량이 급증한다고 한다. 의학적으로 황사 의 미세먼지는 코나 기관지의 점액분비와 기침 등으로 몸 밖으 로 배출되며 폐포로 유입되더라도 대식세포에 의해 제거되기 때 문에 돼지고기의 기름에 의해 황사 먼지가 제거된다는 속설은 과 학적인 증거가 없다. 다만 황사에 포함된 중금속이 체내로 흡수되 어 돼지고기에 포함된 불포화지방산이 중금속 배출에 도움이 된다 는 보고가 있어서 일부 사람들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 나 황사 발생 시 돼지고기에 소주 한잔 걸치는 것보다는 하루 8잔 이상의 물 을 충분히 섭취하여 기관지 점막에 충분한 수분을 제공하는 것이 더 현명한 대처 방법이라 하겠다.



산에 올라 세상을 바라보니...



박 상 배 위원
경기중재부

“당신들은 왜 산에 오르는가?” 그들은 말한다. ‘거기 산이 있어 간다’고. 이 일면의 명쾌한 대답이 또 어디 있겠는가. 고전이 됐지만 35년 전쯤일까, 한국인 최초로 에베레스트의 최정상 마나슬루 峰에 우뚝 섰던 그들이 민족적 감격을 전하며 던졌던 문답이다.

개나리 진달래 꽃 구름 가득한 4월. 남녘 花信이 북상한다기에 주말을 맞아 모처럼 관악산 팔봉에 올랐다. 소박한 마음에 그때 그들이 생각나 발아래 펼쳐진 세상을 다시 한 번 내려다보았다. “산엔 왜 가요” 편찬에도 부득불 말없이 집을 나선 터다. 山도 나처럼 언제나 말이 없다. 그러나 山은 항시 말을 하고 있다. 단지 山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만 말을 하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산을 오르며 속세를 말한다. 아들딸 자식 취직·결혼 걱정, 남정네 허물 처가 자랑, 물가 집값 쪼 그라들기만 하는 살림살이, 이곳저곳 세상타박이 그치질 않는다. 탓할 일이 없다 보니 마뜩지 못한 정계로 화살이 돌아가곤 한다. 온갖 시름 근심 다 쏟아놓지만, 山은 응석으로 알고 다 받아준다. 그리고도 山은 오르는 이들의 육신과 영혼의 안녕만을 빈다.

그래서 산은 어머니의 가슴과 같다. 산은 언제나 인간을 위로한다. 아끼고 사랑한다. 술한 문명의 도전을 받으면서도 언제나 자손들에게 사랑을 베푼다. 인간에게 있어 영원한 어머니의 가슴만한 곳이 또 있을까. 무슨 밑담이라도 있는 양 틈을 짜 멀리 필드(골프장)로 뛰쳐나가지 않아도 되고, 모두가 들어도 좋을 세상만사를 가까이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있어 더욱 좋다. 삶의 형편이 팍팍해질수록 군중이 날로 몰리는 이유가 비단 이 뿐만일까.

그 속에서 우리는 배운다. 인생이 지향해야 할 목표도 배우고, 가치도 가진다. 인간은 왜 꿈을 가져야 하는가와 함께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동시에 얻는다. 이를테면 의지와 저력 그리고 겸손을 함께 전한다. 그래서 산은 항시 이상을 향해 하늘로 치솟고 현실을 향해 지상을 굽어보는 듯하다. 마치 하늘을 향해 손가락을 치켜든 플라톤과 땅을 쪼든 손가락을 거꾸로 세운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哲人들을 음미케 한다.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산이 말하듯 사유, 사변 또한 그 속에 스며 있다. 각급 학교 동창회, 경향 각지 향우회, 동아리 단합대회, 입사시즌 사원연수, 극기와 단합이란 휘황찬란한 명분과 깃발들이 제각기 산으로 산으로 모인다. 땀 흘리지 않는 사람은 산에 오르지 마라. 땀 흘리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인생을 말하지 마라. 땀 흘리는 기쁨을 아는 자만이 목표를 세우고 땀을 쏟는 사람만이 정상에 올라 승자가 될 수 있음을 산이, 역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고 진리이다.

산에 오르면 겸손도 알게 되고 분수도 알게 되며 어려운 고비도 극복하는 지혜와 용기도 얻게 된다.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사랑하며 허찮은 허물을 용서하는 넉넉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우리는 귀한 선물로 얻을 수 있다. 산악인 엄홍길 대장은 말한다. “산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귀의(歸依)하는 것’이기에 산과 자연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그간의 히말라야 등 술한 산행을 통해 터득한 ‘인생철학’에 신앙적 의미까지 보태 말한다.

이를 아는 사람들은 산에 오르고 또 오른다. 억만년 영겁 속에 말없이 산을 오른다. 산은 말없이 그 깊은 침묵 속에 자연의 섭리와 인생의 고뇌를 다 묻고 모든 이치를 다 알고 있듯 엄숙하고 도도히 누워 있다. 산은 결코 말이 없되 모든 걸 다 말해 주고 있다. 귀가 되어 모든 걸 다 들어준다. 그리고는 산처럼 엄숙하게 묵묵히 진지한 인생을 살라 한다. 산처럼 겸허하게 착한 인생을 살라 한다. 땀 흘리며 산을 오르듯 그렇게 열심히 한마음으로 살라 한다.

산에 오를수록 산 앞에 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돔배기와 봄나물



어렸을 때부터 허약하고 병치레가 잦았던 나는 한 번도 무언가를 맛있게 먹은 기억이 없다. 끼니를 거르면 큰일이 나는 줄로 아셨던 어머니께서 항상 아침부터 찌개에 생선에 거하게 차려주셨지만, 밥공기를 반이나 비우면 다행일 정도로 입도 짧았다. 그런 내가 전환기를 맞은 것은 영국에 어학연수를 갔던 2002년! 현지 적응을 과하게 잘한 나머지 갑자기 살이 찌면서 세상 모든 것이 다 맛있어 보이는 사태에 이르러, 심지어 집에 만 오면 뉘 놓고 요리프로그램만 쳐다보고 있다든지, 마트 식품코너만 몇 시간씩 돌면서 침을 흘리는 일들이 벌어졌다. 덕분에 요리 관련 영어단어만 줄줄 꿰게 됐지만 말이다. 그 이후 살은 다시 빠졌지만, 식탐만은 그대로 남아 수년간을 여기저기 배낭여행을 다니면서 현지 음식을 맛보는 것이 취미이자 즐거움이 되었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 맞은 설 명절, 새색시 한복을 펼쳐입고 포항 시택에 내려갔다. 시택은 온 동네가 친인척 관계로 이루어진 집성촌 마을이다. 자, 설이니가 떡국에 만두, 동태전에 동그랑땡 정도 부치지 않겠나, 만두피 정도야 빛의 속도로 밀 수 있고,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은 직접 해본 적은 없지만, 과일, 약과, 북어포, 꽃감 등을 제기에 줄줄이 늘어놓으면 되는 거겠지 했던 예상은 빗나갔다. 내 고향인 충청도의 차례상과 겹치는 건 과일과 나물 정도일까.

시아머니께서는 콩을 갈아 두부를 직접 만드시고 메밀묵을 쥘고, 엿을 직접 고아서 유과(‘박상’이라고 불렀다, 모두)를 만드시는 분이였다. 모든 음식은 일단 밭에서 키워서 손질하여 손수 만들어내셨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돔배기도 모리나.”

TV에서 언뜻 봤던 상어고기를 눈앞에서 보다니! 소금에 절인 돔배기는 네모 반듯하게 잘라 꼬치에 꿰어 기름에 부친 후 제기 가장 아래에 깔고 그 위에 짬을 덮은 후 큰 생선 두 마리를 얹어 차례상에 올린다. 맛을 보니 짭짤한 것이 이제까지 먹어본 생선 맛과는 사뭇 다르다.

처음 보는 음식에 눈이 휘둥그레져 있는데 시련은 왔다.

“가 대빠 가온나.” “예?” “그쪽에 대빠 말이다.” “대빠요?” (▶소주 땃병)

“거 떠배이 덮으라.” “이거요? 저거요? 아님 요거요?” (다 뒤엎으며) (▶뚜껑)

“여 돌개 안 타나 봐라” “돌...개? 이진가요?” (고사리 가리키며) (▶도라지)

아! 좁은 땅덩어리에서 의사소통이 이 정도로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말이다. 억양과 어미가 전혀 다른 것은 물론이고, 특히 음식을 지칭하는 단어는 아예 추측할 수 없다. ‘부추’를 일부 지방에서 ‘정구지’라고 부르거나 ‘벼’를 ‘나락’이라고 한다는 건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웠지만, ‘도라지’가 ‘돌개’, ‘유과’가 ‘박상’이라니! 어째서? 도대체, 왜?

포항의 차례 음식 중에서 특히 맛있었던 건 콩나물,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시금치나물, 해초 등 다섯 가지 나물을 국대접에 둥글게 늘어놓고 깨소금을 뿌린 후 콩나물 육수를 부어 먹는 국물 음식이었다. 딱히 이름이 있는 음식은 아닌 듯하다(아니면 내가 이름을 못 알아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 국을 끓이기 위해 몇 주 전부터 콩나물을 기르고, 뽑아서 일일이 뿌리를 잘라내 다듬는다. 재료가 모두 손이 직접 간 거라 맛이 깊고 구수하다. 차례를 지낸 후 이 국에다 돔배기를 한 점씩 떼어 밥을 먹는 게 일반적인 듯하다. 어색하고 피곤했던, 의사소통도 거의 불가능했던 첫 명절에 이 국물을 떠먹으면서 따뜻하고 편안한 기분이었다. 제철에 난 음식재료로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은 각박하고 정신없는 삶 속에서 지친 몸을 치유받는 듯한 느낌을 준다.

하우스 재배에다 수입 농산물 때문에 ‘제철’의 의미가 퇴색된 지 오래지만, 요즘은 봄나물이 맛있는 철이다. 봄나물은 식곤증을 예방해 주고 칼슘 등 무기질 함량이 풍부한 데다 겨울을 지내면서 허해진 기를 보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한다. 한가한 주말, 한 번쯤 대형할인점이 아닌 동네 재래시장을 방문해 냉이를 사다가 된장찌개도 끓이고, 달래도 한 움큼 사서 무쳐보는 건 어떨까.



이정희
연구팀

페르시아전쟁을 불러온 ‘왕의 예시몽’, 현대인들도 ‘예시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최효찬
칼럼니스트



기원전 480년 봄,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이 그리스를 침입하기 전에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세계사적으로 첫 동서 간 전쟁으로 기록되는 그리스 원정을 결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 원정을 생각하고 신하들과 논의한 뒤, 아르타바노스의 의견에 따라 그리스 원정을 중지하기로 마음먹고 밤에 잠이 들었다. 그날 밤 꿈에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가 나타나서 그리스 원정을 진행하라고 촉구한다. 그런데 다음 날 회의에서도 크세르크세스는 여전히 그리스 원정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날 밤에 다시 꿈을 꾸게 된다. 이번에는 앞서 꿈처럼 단순히 원정을 계속하라는 경고만이 아니라, 크세르크세스가 권좌에서 밀려날 것이라고 위협한다. “다리우스의 아들이여, 그대는 페르시아인 앞에서 공공연히 원정 중지를 선언하고 내가 말한 것을 무시해 버렸소. 그러나 알아두시오, 즉시 원정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대는 짧은 시간 내에 권좌에 오른 만큼 빨리 몰락하게 될 것이요.”

이 꿈에 대해 숙부인 아르타바노스를 불러 상의하자, 그는 왕의 꿈 이야기가 쓸데없는 걱정이라며 마치 현대인의 심리학적인 꿈풀이처럼 이렇게 말한다. “전하, 그 꿈은 신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요컨대 꿈이라는 것은 낮에 생각했던 것이 잠잘 때 환영이 되어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도 위안은 되지 못했다. 크세르크세스는 그리스 원정을 중지하면 실각할 것이라는 예시몽에 불길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했다. 고민 끝에 아르타바노스에게 자신의 의상을 입고 옥좌에 앉아 있다 왕의 침소에 들러 잠을 자기를 권했다. 왕은 자신의 꿈에서처럼 그리스 원정이 신의 뜻이라면 아르타바노스에게도 같은 꿈과 환영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했다. 왕의 의상을 입고 왕의 침소에서 잠을 청한 아르타바노스는 꿈속에서 크세르크세스 왕이 꾸는 꿈을 그대로 꾸었다. 그가 잠들자 크세르크세스를 찾아왔던 바로 그 환영이 침상에 나타나 말했다. “크세르크세스를 걱정하는 체하며 그리스 원정을 중지시키려는 자가 그대인가? 장래의 일이든 현재의 일이든 운명의 흐름을 바꾸려 한다면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빨갛게 달아오른 쇠로 아르타바노스의 눈을

찌르려 했다. 그는 큰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난 뒤 크세르크세스에게 달려가 꿈 이야기를 전하며 신의 뜻이 그리스를 멸망시키는 데 있다고 전한다. 크세르크세스는 날이 밝자마자 곧 꿈의 전말을 페르시아인들에게 알렸고, 그리스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이 꿈 이야기는 ‘역사의 아버지’로 불리는 헤로도토스가 쓴 최초의 역사서인 ‘히스토리아이’(원뜻은 ‘탐구’인데 ‘역사’로 번역) 대미를 장식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최초의 역사서인 ‘역사’에는 신화의 세계, 신탁의 이야기들이 혼재되어 있다. 그리스는 델포이 신탁의 예언(‘나무로 만든 벽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무사하리라’)대로 배를 만들어 해전을 준비해 살라미스 해전에서 승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은 애초 그리스 원정을 중지하려 했지만, 원정을 하지 않으면 권력을 잃게 된다는 꿈을 꾸 후에 원정에 나섰다고 헤로도토스는 기록하고 있다. 헤로도토스는 신화시대의 그리스를 그 후 사건의 배경으로 그려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그리스 원정에 관한 이야기를 이끌어가면서도 ‘신탁’과 ‘꿈’이라는 문학적 장치에 의존했다. 이 때문에 투키디데스는 헤로도토스를 ‘역사의 아버지’가 아니라 ‘거짓말쟁이의 아버지’로 폄하하기도 했다.

현대사회에서 학문의 세계든 기업의 세계든 가능한 과학적 사고로 접근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현실세계에서조차 수많은 ‘결정’에 반드시 과학적 사고만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때마침 최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이 한국 역술인에게 자신과 가족의 사주를 봐달라고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 역시 인간적인 불안을 달래기 위해 점성술에 의지한 것일 게다. 따지고 보면 우리 또한 다를 게 없다. 우리 대부분은 전날 밤 꿈에 따라 하루의 길흉을 점쳐보지 않던가 말이다.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 원정이라는 세계적인 대전을 앞두고 ‘꿈’에 의지해 원정을 ‘결정’했다는 헤로도토스의 역사 서술이 오늘날 기준으로 볼 때 흥미주의적 접근이라고 매도될 수 있지만, 인간의 의지와 신의 의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한다.

CASES

조정중재사례 소개

| 명예훼손 사례 | 결혼정보회사 아르바이트생 고용의혹 기사, 정정보도 게재로 조정성립

A 인터넷신문사는 결혼정보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맞선파트너로 소개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신청인 회사는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식 회원이고 사내 DB상의 회원 개인정보와 미팅일자·장소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A 언론사는 취재원의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였고 의혹제기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재부는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을 설득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음성권 침해 사례 | 동의없이 대화내용을 녹음·보도하여 음성권을 침해한 사건, 기사삭제로 조정성립

B 방송사는 대학들이 비싼 수수료 등을 이유로 신입생 등록금 납부 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에서 모 대학 재무회계팀에 근무하고 있는 신청인의 음성을 동의 없이 보도하였다. 신청인은 보도화면에 근무하고 있는 대학의 구체적인 장소가 나와 교내 구성원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학교와 관련부서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당사자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음성을 변조하였다고는 하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보도한 것은 음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을 설득, 보도영상 및 기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김석준 _ 인터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세계적인 추세”가 매우 흥미로웠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직접 인터뷰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생생하게 인터뷰 내용이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환 회장은 공약에 내세운 것처럼 현재 고장난 사법시험제도를 뜯고치겠다는 포부와 열정이 대단하고 또 단지 돈이 없어서 법의 도움을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진정으로 약자의 편에서 이해해 주시는 이런 분이야말로 진정한 언론인 겸 법조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어 발만 동동구르는 안타까운 분들이 많은데, 국가와 변호사협회의 도움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하니 그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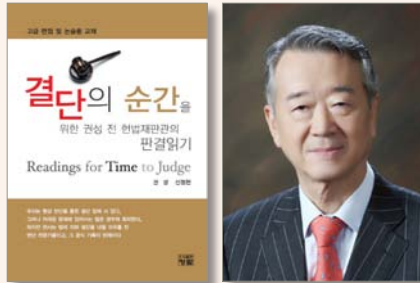
현재 언론중재위원회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손이 닿지 않는 가려운 부분까지 속 시원하게 긁어주고 또 국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멋진 언론중재위원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화이팅!!!

장보경 _ 언론사람 3월호를 읽고 언론중재위원회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나의 언론분쟁 경험기>에 나왔던 사례를 보면서 한 개인이 거대 언론사와 대립을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많은 도움을 준 언론중재위원회의 활약상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론사와 문제가 생겨 해결하기에 막막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갈등이 조정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아직까지 언론중재위원회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홍보지에 실린 여러 분야 사람들의 글 덕분에 다양한 생각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우정렬 _ 우연히 공공도서관에서 눈길에 닿은 [언론  사람]을 읽고 비록 분량은 다른 책자에 비해 적지만 내용이 알차고 읽을거리가 상당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론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와 더불어 ‘제4부’로 불릴 만큼 그 영향력이 크며 인권과 자유의 신장, 국민권익의 향상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소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하며, 국민민복을 최대의 가치로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방송이나 신문사는 보도성향이 권력중속적이기에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며, 그 피해와 불이익은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물론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이를 개선하고 시정해 나갈 수 있지만,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기관이 있는지도 모르거나 어떤 기능과 활동을 하는지 상세히 모르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이런 대외홍보지도 보다 많이 발행하고 배포하여 일반 국민들도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야 하리라 봅니다.

「결단의 순간을 위한 권성 전 헌법재판관의 판결읽기」 발간



권성 위원장은 3월 「결단의 순간을 위한 권성 전 헌법재판관의 판결읽기」를 신정현 변호사와 공동으로 발간했다. 이 도서는 권 위원장이 재판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관여한 판결문과 결정문 중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과 소수의견·별개의견 위주로 선별하여, 재판관 개인의 판단과 논리를 가장 잘 엿볼 수 있다. 이 책의 구성은 개인과 관련된 문제들과 국가적 사안으로 구분한 뒤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에 대한 해석으로 이어진다. 법조인의 전유물로만 인식되던 어려운 판례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일반인과 학생들이 사고를 정리하고 판단력을 연습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이 책을 통해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보는 훈련을 거처다 보면 논술·면접에서 경쟁력을 얻을 뿐 아니라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위 위원장 위촉



김정택 위원(서울제6중재부)과 류석호 위원(경기중재부)은 3월 28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회장 김민기)의 기사형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매체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위촉됐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1991년 광고관련 단체들이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신문과 잡지의 광고를 사후심의한다. 두 위원회는 언론계, 학계, 소비자단체, 광고업계, 공공분야 등 각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이다.

「비교정치론(제2판)」 출간

김창희 위원(전북중재부,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은 2월 「비교정치론(제2판)」을 출간했다. 이 책은 비교정치학에 대한 이론서로 정치체계, 정치커뮤니케이션, 정치문화, 정치발전, 정치참여, 환경정치 등에 대한 이론과 실제적인 면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번 판에서는 기존 연구에 대한 보강과 함께 정치리더십과 정부형태 분야를 새로운 장으로 추가하였다.



울산CBS라디오 대담 방송



장성운 위원(경남중재부, 전 한울일보 본부장)은 3월부터 울산의 개신교 선교사(史)를 돌아보는 대담형식의 라디오방송에 3월부터 1년간 참여한다. 울산CBS라디오(FM100.3MHz) 프로그램 「나눔과 행복의 만남」의 기획코너인 「땅의 길 하늘의 길」은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5분부터 25분까지 20분간 방송된다.

법학 박사학위 취득

박동섭 전 위원(2000년~2003년, 서울제2중재부)은 2월 25일 연세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논문 제목은 “생전유언(living will)의 법리와 제도연구”이며,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매일 대표이사 취임

김종배 전 위원(2005년~2007년, 제주중재부)은 3월 18일 제주매일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김 전 위원은 제민일보 상무이사, CBS 제주방송 보도제작국장을 역임한 바 있다.

「현대문예」 신인문학상 수상

이용길 전 위원(1996년~1999년, 제주중재부)은 2월 ‘짐이 이김이어’라는 작품으로 「현대문예」 제67회 수필 부문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수필가로 등단했다.

위원회 소식

NEWS

2013년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총회 개최



위원회는 3월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201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운영위원 9명과 시정권고위원 7명을 선출하고, 2012년도 결산안과 2013년도 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운영위원 및 시정권고위원 명단〉

운영위원 (9명)	권성 위원장, 정학철 부위원장(서울제3중재부), 조윤신(서울제6중재부), 권일(서울제8중재부), 조성호(대구중재부), 이택수(강원중재부), 조덕현(충북중재부), 김창희(전북중재부), 박경숙(제주중재부) 위원
시정권고 위원 (7명)	권성 위원장, 김종량 부위원장(전북중재부), 어경택(서울제5중재부), 박현채(서울제5중재부), 권오승(서울제6중재부), 박성희(서울제8중재부), 이영진(서울제8중재부) 위원

위원회-전북지방변호사회 및 충북지방변호사회와 MOU 체결



위원회는 3월 18일 전라북도지
방변호사회(회장 김영)와, 3월
26일에는 충청북도지방변호
사회(회장 신승현)와 각각 무료
변론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 배려계층 및 경제적 능
력의 부족 등으로 언론조정·
중재절차에서의 출석 및 진술
등이 곤란한 당사자에게 무료
변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이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해 2
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첫 업
무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향후

조정·중재절차에서 실질적이고 폭넓은 권리구제를 위해 타 지방변호사회와도
업무협약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무원 대상 첫 연속교육 실시



위원회는 올해부터 조정중재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3월 7일과 8일 양일간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첫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대체적 분쟁
해결제(ADR)에 대한 강의를 비롯하여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한 이해', 'Social
Media 커뮤니케이션 전략', '정책홍보와 설득의 스토리텔링' 등 최근 이슈에 관
한 강의도 이어졌다.

조정중재아카데미, 서울시 교육청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

위원회 조정중재아카데미가 서울특별시 교육청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됐
다. 해당 아카데미는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중재와 언론대응' 과정으로 교원의 효과적인 언론전략 및 학교 관련 보도
의 위기대응 능력을 배양하고, 학교 내 분쟁 및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중재 기법
및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신임 중재위원 및 중재부장 위촉

3월 1일과 3월 25일 신임 중재위원이 위촉됐다.

성명	중재부	경력사항	임기 (전임자 잔여임기)
김형곤	부산중재부	동명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13.3.1. ~ 15.8.31.
박홍래	서울제1중재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13.3.25. ~ 15.8.31.
고연금	경기중재부	수원지법 부장판사	
임성철	강원중재부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최용호	제주중재부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13.3.25. ~ 14.3.30.

신입직원 임용 및 사무처 인사

위원회는 3월 18일자로 사무처 직원 3인을 신규 채용하고, 4월 1일자로 아래와
같이 인사를 단행했다.

- 임용(2013년 3월 18일자)
[일반직 5급] 김진하, 김나래, 왕정민
- 승진(2013년 4월 1일자)
[1급] 운영본부장 권오근
[2급] 기사심의팀장 여종국, 수시교육팀장 손정배
[3급] 기획팀 차장 김태호, 총무팀 차장 박천서
- 전보(2013년 4월 1일자)
기획팀 이세라, 연구팀 이다솔
예산회계팀 김진하, 접수상담팀 왕정민, 총무팀 김나래

〈설득 및 수사 기법 월차보고서〉 4월호 발간

위원회는 4월 1일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의 자료 제2호를 발간했다. 설득을 위
한 언어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기법으로 조명해
본 조정전략 등이 수록되었다.

계간 「언론중재」 봄호 발간



위원회는 계간 「언론중재」 2013년 봄호(통권126
호)를 발간했다. 기존 전문학술지에서 미디어 관
련 정보지로 편집방향을 전환하고 해외 미디어
관련 이슈 등 풍성한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에서 오른쪽의 QR코드를
인식시킨 후 언론중재위원회 모
바일웹(m.pac.or.kr)에 접속하면
각종 간행물 코너에서 PDF 파일
을 다운받을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교육프로그램이 확대되었습니다

ADR 교육과정 및 언론피해 예방·구제 교육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중재를 비롯한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DR 전문 교육과정

현직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이 조정·중재 실무, 설득·협상 커뮤니케이션, 언론대응기법 등에 관한 실질적인 분쟁해결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 교육

언론피해구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은 조정·중재사례 및 법원판례 등 언론보도 피해 및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조정·중재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대상 |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기업, 언론인, 대학(원)생 등

| 비용 | 무료

| 문의 | ADR 전문 교육과정 ☎02)397-3092~4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 교육 ☎02)397-3062~4.

